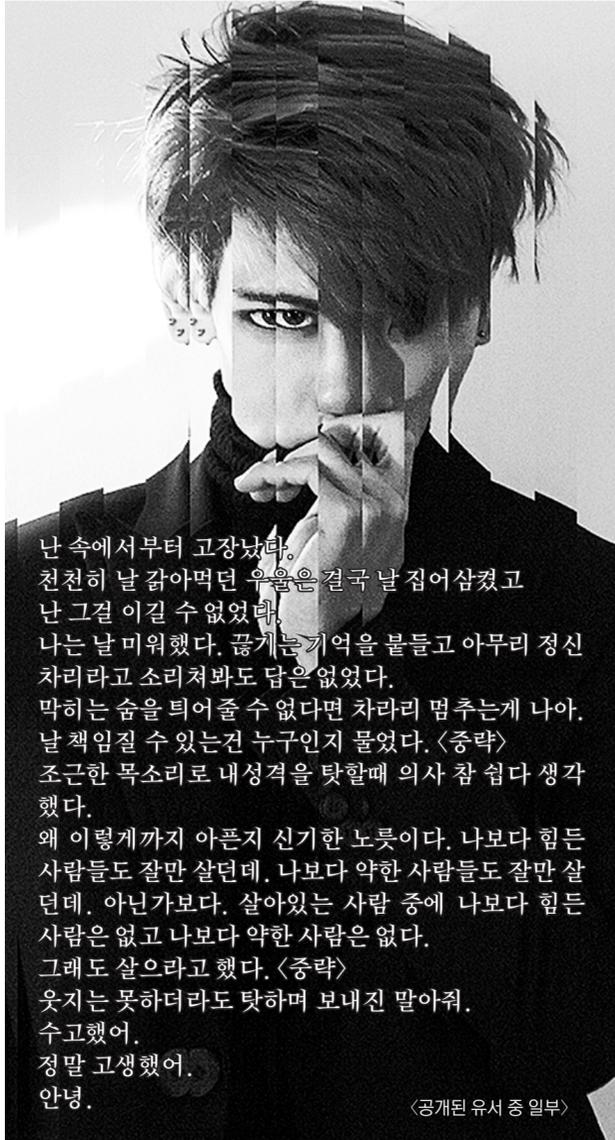


#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다”



## 절친 록밴드 멤버 나인 故 종현 유서 공개 자작곡 ‘론리’ ‘하루의 끝’ 등 차트 재진입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28·본명 김종현)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2분께 종현의 친누나가 경찰에 “동생이 자살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종현의 누나는 신고 직전 종현으로부터 “이제까지 힘들었다”, “나 보내 달라. 고생했다고 말해달라”, “마지막 인사”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

경찰이 위치를 파악해 오후 6시 10분께 해당 레지던스에서 종현을 발견, 119구조대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전했다. 발견 당시 종현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확실해 보이고 유족이 원하지 않아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유족을 상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현은 2008년 5월 ‘누난 너무 예뻐’로 데뷔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5인조 아이돌 그룹 샤이니(SHINee)의 멤버로 10년째 활동해왔고, 솔로 활동도 병행했다.

한편, 4인조 모던 록밴드 디어클라우드의 멤버 나인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종현의 가족과 상의 끝에 그의 유언에 따라 유서를 올린다”며 종현의 유서를 공개했다.

종현은 유서에서 “조금씩 목소리로 내 성격을 닮을 때 의사 참 쉽다 생각했다”며 “왜 이렇게까지 아프지 신기한 노릇이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힘든 사람 없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없다”고 호소했다.

종현은 “세상에 알려지는 건 내 삶이 아니었나 봐. 다 그래서 힘든 거더라. 부딪혀서, 알려져서 힘들더라. 왜 그걸 택했을까. 웃긴 일이다. 지금껏 버티고 있었던 게 용하지”라며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에 알려지던 유명인의 삶이 괴로웠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무슨 말을 더해. 그냥 수고했다고 해줘. 이만하면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해줘. 웃지는 못하더라도 맞으며 보내진 말아줘”라며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안녕”이라고 글을 매달지었다.

종현의 사망소식이 전해진지 이틀째인 19일 음원차트에는 종현이 만들고 부른 노래들이 뒤늦게 재진입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멜론차트에는 종현이 올해 4월 발표한 두 번째 소품집 ‘이야기’의 타이틀곡 ‘론리’(Lonely)가 1위를 기록했다.

또 다른 수록곡 ‘하루의 끝’은 8위에 올랐으며, 종현이 작사·작곡하고 가수 이하이가 부른 ‘함숨’은 6위를 기록했다.

종현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유족들과 SM엔터테인먼트는 장례 절차를 준비 중이다. 팬들은 정오부터 조문이 가능하다.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잡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끔찍한 기억을 붙들고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소리쳐봐도 답은 없었다.  
막히는 숨을 뱉어줄 수 없다면 차라리 멈추는게 나아.  
날 책임질 수 있는건 누구인지 몰랐다. <중략>  
조금씩 목소리로 내성격을 닮았을 때 의사 참 쉽다 생각  
했다.  
왜 이렇게까지 아프지 신기한 노릇이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도 잘만 살던데, 나보다 약한 사람들도 잘만 살  
던데, 아닌가보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없다.  
그래도 살으라고 했다. <중략>  
웃지는 못하더라도 맞으며 보내진 말아줘.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안녕.

<공개된 유서 중 일부>



## 신입 멤버 박서준 합류...내달 5일 첫 방

나영석 PD가 연출하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 시즌2가 새해 다시 문을 연다.

tvN은 19일 “‘윤식당’이 내년 1월 5일 밤 9시 50분 새 시즌으로 돌아온다”며 “배우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이 스페인 테네리페 섬의 작은 마을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이 담긴다”고 밝혔다.

시즌2는 신입 멤버 박서준의 합류로 기대를 모은다. 그는 연극 관련 해외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된 ‘구알바’ 신구의 뒤를 잇는다.

제작진은 “시즌1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배낭여행객들을 손님을 모셨다면, 시즌2에서는 세계 각 지역 여행객들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만나 정을 나눈 이웃들이 주 고객으로 등장해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이라고 전했다.

시즌2 배경이 된 테네리페 섬에 대해서는 “유럽의 하와이로 불리며, 대서양의 숨겨진 행운의 섬으로 알려진 곳이다. 작지만 중세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 착해 빠진 주부의 파란만장 이중생활

### SBS ‘착한 마녀전’ 이다해·류수영 주연

배우 이다해(33)와 류수영(38)이 내년 3월 초 처음 방송할 SBS TV 새 토요드라마 ‘착한 마녀전’의 주연으로 나선다.

SBS는 19일 “‘착한 마녀전’은 방영 중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후속으로 내년 3월 방송 예정인 ‘착한 마녀전’에 이다해, 류수영과 안우연, 배수빈, 윤세아가 출연한다”고 밝혔다.

‘착한 마녀전’은 너무 착해서 털이었던 주부 차선희(이다해 분)가 ‘단칼 마녀’라는 별명의 못된 상동이 동생 도희의 삶까지 살며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내용이다. 류수영은 항공사 부조종사이자 비혼주의자인 송우진을 연기한다.

대본 집필은 ‘미녀의 탄생’, ‘잘키운 딸 하나’, ‘태양의 신부’ 등을 쓴 윤영미 작가가, 연출은 ‘아내의 유혹’, ‘내마음 반짝반짝’ 등에 참여한 오세강 PD가 맡았다.

TV 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 20 MBC네트워크특선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2TV 생생정보	00 MBC 뉴스 20 아시아의 진통시장 50 억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그레이트 지리산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템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VJ 특공대(재)	50 로봇이 아니야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UHD 한식의 마음	50 살리는 남자들 스페셜(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MBC 뉴스 10 PD수첩(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제4회 KBC 전국 청소년예술제 대상 경연연주회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미래기획 2030(재)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5 위대한 영화의 탄생지 (브리짓존스의일기의 런던)(재)	
2	40 월요기획 2부작 -태권도, 다시 세계를 품다	00 생활의 발견 50 자동차부품상 위기 2	1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55 보글야 사랑해	00 뉴스브리핑
3	30 행복한 지도(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25 헬로키티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55 텔레몬스터	
4	00 4시 뉴스집중		00 TV속의 TV(재)	00 제4회 KBC 전국 청소년예술제 영상부문 수상작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5 UHD 한식 (재)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절리고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MBC 뉴스 10 양코르 MBC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방송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55 지식충조림
7	00 KBS 뉴스7 35 공감다큐, 사람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자막
8	0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재) 20 UHD 한식 (재)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흑기사(재)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50 하하랜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40 무너진 방역, 세계는 AI 전쟁중			
10	35 KBS 뉴스라인	00 흑기사	00 로봇이 아니야	00 이판사판
11	05 문화의 향기 55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김성민의 영수증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 1~2부
12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2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풍속 기행 인도네시아 타나토라지)	09:40 글로벌 여행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담요반)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똑딱맨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노(재) 08:45 한글이 야호2 09:00 레이디디그 09:30 플랑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e 12:45 EBS 초대석(재) 13:40 미래강연 Q(재)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마사와 곰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한글이 야호(재) 16:45 뽀롱뽀롱 유치원1~2(재)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7:30 똑딱맨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4 19:00 몬카르(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장수의 비밀 20:40 다큐 오늘 ( <u>뉴스의 맛, 식혜의 맛, 가자미</u> )
	20:50 세계테마기행 ( <u>인살라, 모로코 3부</u> 페스에서 9천 개의 골목을 만나다) 21:30 한국기행 ( <u>아궁이기행 3부</u> 모락모락 아궁이 솟았) 21:50 EBS 다큐프라임 ( <u>슬픈 늑대</u> ) 22:45 극한직업 ( <u>당숙 보물</u> -갯벌 낙지와 장(長마)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미래강연 Q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0일 (음 11월 3일 辛巳)

<b>子</b>	48년생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확신을 갖고 임하라. 60년생 거시적인 안목으로 조망하라. 72년생 목표를 향하여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라. 84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딜레마에 빠져들 수도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30, 49	<b>午</b>	42년생 모르는 사이에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54년생 화합은 부를 일으키며 불화는 부를 파멸시킬 것이니라. 66년생 측면에 따라 연쇄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78년생 속히 미련을 버려라. 90년생 빠른수령 좋다. 행운의 숫자 : 59, 37
<b>丑</b>	49년생 지금 이 상태로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욕심을 분명히 거려서 관계를 맺음이 현명하다. 61년생 총격적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머뭇거리게 된다. 73년생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85년생 완급 조절을 하라. 행운의 숫자 : 49, 05	<b>未</b>	43년생 자체만으로 충분하다. 55년생 가시가 번고로 날을 것이니라. 67년생 특별한 편세이니 일을 실행하기 전에 치밀한 분석력이 요청된다. 79년생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91년생 견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르다. 행운의 숫자 : 57, 00
<b>寅</b>	50년생 기대하고 있었던 바가 커서 낙심하겠다. 62년생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74년생 매끄럽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86년생 신용을 잃은 이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4, 21	<b>申</b>	44년생 아직 설익었으니 지금 먹어 버린다면 입이 즐겁지 못 할 것이다. 56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68년생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느니라. 80년생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2, 78
<b>卯</b>	51년생 낙수물로 바위도 툭리는 법이다. 63년생 방심한다면 급경사의 내리막길로 차달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75년생 그릇이 커야 많이 담을 수 있다. 87년생 후유증이 오래 가지 않게 빨리 제거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6, 10	<b>酉</b>	45년생 액면 그대로 인식해야만 명명한 관점을 확보한다. 57년생 애매한 국면에 놓여 있으면 굳이 실행할 필요 없다. 69년생 여명에 밀려가는 어두움을 보게 되리라. 81년생 수량이 아니라 질의 문제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5, 57
<b>辰</b>	52년생 하나하나 접하다 보면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64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앞만 보고 뛰어든다. 76년생 행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88년생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2, 53	<b>戌</b>	46년생 발전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교류가 있다. 58년생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다. 70년생 성과 없이 유두무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82년생 단순한 비교는 오판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17, 11
<b>巳</b>	53년생 지금까지의 진행되어온 것이 소비적이라면 반드시 고려해 봐야만 한다. 65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77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발전을 이끌 것이다. 89년생 점자로 발전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3, 69	<b>亥</b>	47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버를 펼친다면 뜻을 이루리라. 59년생 불만하다면 버려라. 71년생 서두르지 않는다면 해 저무는 과정의 처지가 될 것임에 반한다. 83년생 특수한 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어서 변화무쌍하다. 행운의 숫자 : 87, 9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